

◆며느리권씨 일전 11-1

## 윤휴(尹鑄, 1617-1680)의 부인 정경부인 권씨 (추밀공파 24세, 권첩權怡의 딸)

정경부인 권씨의 남편 윤휴(남원 윤씨)



윤휴 초상화

사문난적으로 가는 초청장이고, 저승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조선 후기 사회는 다른 생각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아주 경직된 사회였던 것이다. 그것의 후과는 참혹했으니 아직 그 친일과 외세의존과 교조적 외래종교의 지배를 통해 기득권의 이익이 거짓 언론과 왜곡된 엘리트 특권층의 우월주의로 포장되어 난무하는 시대에 그는 우리 역사에 있어 구원의 한줄기 빛으로 닥아오고 있다.

즉 이러한 분위기는 윤휴 사후에 동학민중혁명의 처참한 실패로 나타나고 세도정치와 일제 강점기 하의 기득권 세력은 지금까지 정치계와 학계에 반민족적 독버섯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윤휴는 현재 기득권 세력이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만큼 윤휴의 죽음은 조선 사회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윤휴(남인 청남계)의 강경책은 이런 극한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바야한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나와 다른 너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대, 그리고 실제 그렇게 죽여왔던 시대, 그런 증오의 시대의 유산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 백호 윤휴의 인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그 시대 만의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체절명의 극복해야 할 명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휴는 덕(德)있는 조광조이고 조광조는 덕을 못 이룬 윤휴라는 말이 있다.’ 그는 ‘주자(朱子)의 말이다 맞다는 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유학(儒學)을 바라봤다.

죽음에 이르러 마지막 붓과 종이를 부탁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후 마지막 정통파 적자 현종의 왕비 여걸 명성왕후 김씨의 핏줄 단계와 오만의 왕 숙종의 계략인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하여간 그는 억울한 사법살인적 최후를 맞았고 그것의 맷가인가? 9년 뒤 그 반대파 송시열도 팔십노객으로 사약을 받는다. 이는 경술기사, 갑술한국의 판같이 과정에서 무수한 선비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고 더 이상 학회는 없는 무한 적대의 시대 상황만 반복하고 이에 죽어나는 것은 민초(百姓)였다.

### 윤휴의 이력

그는 윤증, 윤선거와 같은 파평윤씨가 아닌 남원윤씨(南原尹氏)이다. 시조 윤위(尹威)는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의 8세손이며, 윤관 장군의 증손자라고 한다. 윤위는 1176년(고려 명종 6년) 문과에 급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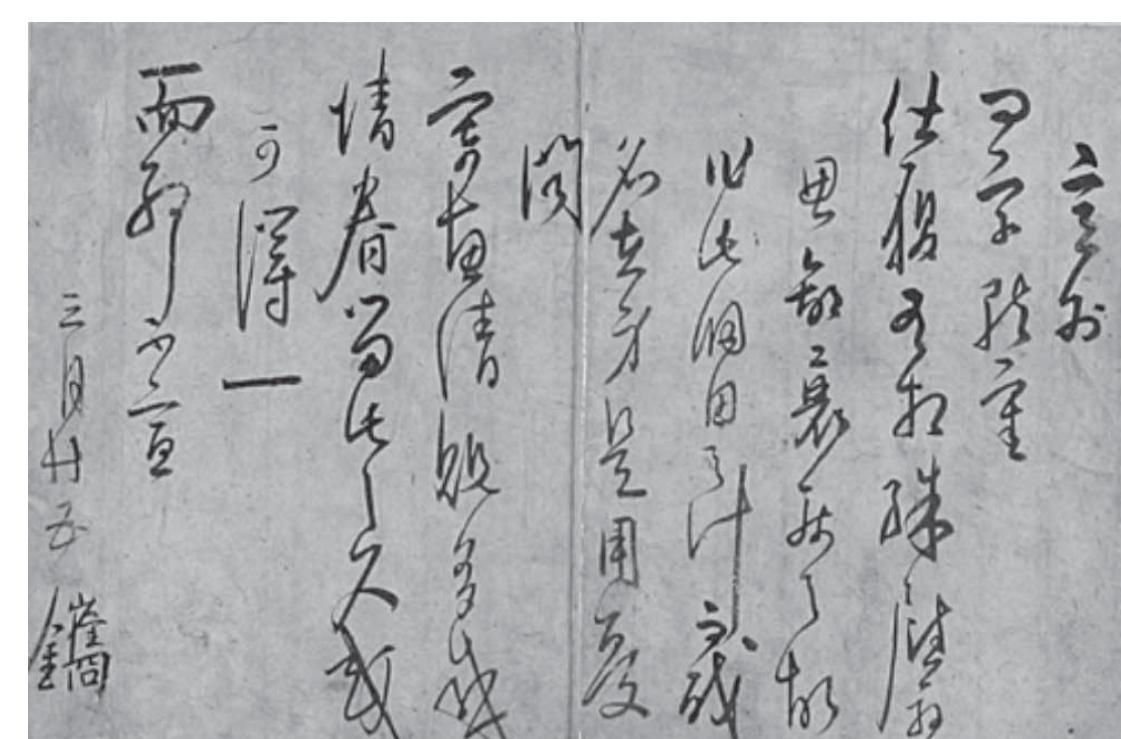
'금기어가 된 조선 유학자 윤휴' 이덕일 저

여 국자박사를 거쳐 기거랑, 이부랑중, 예빈소경 등을 지냈다. 1200년(고려 신종 3년) 국자사업으로 전라도에 갔을 때 남원에서 복기남이 반란을 일으키자 적을 토펑하여 평정시킨 공으로 남원백에 봉해졌다고 한다. 사실상 동본이나 윤선거와는 거리가 있고 그의 부친(윤효전)도 파평윤씨 윤담휴(尹覃休)의 딸과 결혼하였고 상처후에 학자인 간서재 김덕민의 딸 경주김씨와 재혼하였다. 두 번째 부인인 김씨에게서 만두자(52세)인 아들 윤휴를 경주부윤(시장)재임시 얻었으나 득남 삼년후 사망한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서 살았다. 세 살 때 서울로 돌아와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여주의 옛집으로 가서 살았고, 정묘·병자호란 때에는 보은 산간(三山)의 외가로 가서 피난하였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한때 선영(先榮)이 있는 유천(대전시 중구 유천동)으로 들어갔지만 주로 여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탄옹(炭翁) 권시를 비롯한 남인계 인사들과의 교분을 나누고 대전 유천에 살면서부터는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조례 이우태, 서남 유계, 석호 윤문기, 미촌 윤선거 등 서인계열의 이름난 선비들과도 만나면서 당파에 구애됨이 없었다.

1630년에 벼슬에 나아갈 뜻으로 만ian소를 지었으나 바로 그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나라가 치욕을 입자 신하로서의 부끄러움을 자책해 치욕을 씻을 때까지 벼슬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다가 1674년(현종 15) 7월에 중국에서 오삼



윤휴의 유묵

계(吳三桂)의 반청(反清) 반란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이 때가 전날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해 ‘대의소(大義疏)’를 지어 왕에게 올린다. 이것은 당시 송시열등 기득권이 말로만 북진(北進)하고 하지 실제는 그 걸 이용하여 현상유지만 하려는 반민족적 태도를 낸은 주자학으로 포장 한 것은 지금 시태(時態)와 너무나 같아 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숙종 2년 정4품 성균관사업(司業·강사)의 직을 받았고, 그 후 5개월 만에 대사헌을 비롯해 판서 직을 몇 차례 거쳐 1679년(숙종 5) 9월에는 우찬성(부총리급)에 올랐다. 당시 윤휴와 토론하고 난 당대의 석학 송자(宋子)라고도 불리던 우암 송시열은 “30년 간의 나의 독서가 참으로 가소롭다”라고 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윤휴, 송시열, 윤선거는 당대 허목, 이원의등과 함께 학문의 최고봉이었고 상호 존중의 관계에다가 얼친 인척 관계인데도 결국 피를 부르는 사이가 되고 만다. 오리 정승 이원의도 시대의 거봉으로 진정한 경제제민의 모범적 재상인데 아직 우리는 그의 위대성을 모른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한 지도자의 공로는 역사에 남지 않고 전쟁을 불러와 싸운자는 역사에 영웅으로 남는다. 지금 현세의 보수 언론이 선조라는 인물을 이승만과 빗대어 치켜 세우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윤휴는 경서(經書)들을 비평하여 독자적 의견으로 해석을 더한 ‘독서기(讀書記)’를 남기니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탄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1680년 경신한국으로 사약을 받고 말그대로 윤휴는 18세기 이후 서인 노론 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이단(異端)으로 언급이 급기시 되니 그의 문집이 처음 나온 것도 1927년이다. 그의 호는 여주 살 때의 지역명인 백호(白湖)인데 67년 연상인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와 오비랩되는 것은 또 다른 ‘인연의 끈’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섬뜩한 법칙을 확인하여 주는 느낌이다.

그는 병법과 무기며 일가견이 있고 매우 실리적

이어서 청나라가 단순히 오랑캐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고 허명뿐인 명분만 따지는 주자학의 책상물림들의 소위 예송논쟁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주장하고 시행했다.

호화법 개선으로 양반 쌍놈 구분 줄이고 호화를 종이로 제조하여 비용절감하기, 양반도 병역의 의무를 가지도록하고, 군포를 내게하고, 특권계급의 왜곡된 군부 통제수단인 비변사(계엄사급) 폐지, 오위도총부 설치(정식 사령부급) 등이다. 이것이 결국 명목상은 사문난적이라지만 기득권의 재산 문제에 손을 댄 보복으로 당시 부패하고 교조적 양반집단(노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들 특권층은 조선의 왕도 중국의 신하이니 자신들과 동급으로 보고 국정을 오로지 한 것이다. 그것이 경종(景宗)의 의문사, 영조의 즉위와 장기집권 이인좌 사건, 사도세자 사건등등 변칙적 사태의 연속을 가져 온 것이다. 이인좌의 사상도 새롭게 조명하여야 시대적 사안이다.

여기서 윤휴의 손자 사위가 이인좌라는 것은 역사의 유전자는 모질게도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요즘 공무원 연금, 부동산, 법조시장, 언론권력, 재벌독점등이 연합하여 특권유지에 골몰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봐야한다. 그의 부활은 이 시대의 소망이다. ‘보복의 끈’을 과감히 끊고자 했던 그의 생각은 옳았다. 그가 죽으면서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남기고 사약(賜藥)을 받는다. 결국 이순신의 외손이 이면서 북벌의 동지이며 이복형인 윤영(尹鑄, 1611~1691)이 시신을 모시는 입장이 된다. 당시 윤휴의 자식들은 귀양을 가서 없었다. 윤영은 81살 까지 장수하지만 그의 일생은 강직하고 곤궁했다. 이순신의 손자 다운 삶을 살았다고 봐야하고 이복동생 윤휴와 우애가 깊었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 안동권씨 능곡회 경기도 행주산성 문화탐방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권용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성 능곡회장, 권영훈 자문위원, 권기형 운영위원회장이 차례로 인사를 하고 권오성 대종회 안동사무국장이 권율 도원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연타방’ 본점에서 돼지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전세버스의 ‘네비’가 길을 잘못 알으켜 주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길을 헤매기도 했다. 목적지인 행주산성



에 도착하자 권오성 대종회 총무국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반갑게 우리 문화탐방단을 맞아 주었다. 이날은 도요일인데 날씨마저 초여름을 방불케 해몹시 더웠다.

문화탐방단의 인원이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누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팀은 우금제 고양시 해설사의 안내로 권율 도원수 등장, 대첩기념관, 행주대첩 초건비, 행주대첩비를 둘러보았다.

권율 도원수 등장은 높이 5m, 좌대높이 3.5m 크기로 근대 조각가 김세중 작품이다. 등장 뒤 4폭 부조들은 행주대첩 당시 관군, 의병, 승군, 여성들의 치열한 항전 모습을 담았다. 권율 도원수의 영정을 모신 충장사(忠莊祠) 사당은 1970년 건립하였으며 매년 행주대첩이 있었던 양력 3월 14일을 기념하는 제례행사가 열린다.

이날 탐방단은 사당 앞에서 권율 도원수의 초상화를 향하여 일제히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 대첩기념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는 로켓화살 신지전과 지금의 기관총 원조로 볼 수 있는 문종화차도 있다. 임진왜란 전투도인 행주대첩도, 이차대첩도, 독산성 싸움도 등 권율 장군이 승리한 대첩 그림 3점도 전시되어 있다. 1963년 경기도민들의 성금으로 덕양산 정상에 세워놓은 행주대첩비(3호 비)는 정면의 큰 글씨 ‘幸州大捷碑’(행주대첩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쓰고 비문은 신석호가 짓고 글씨는 서희환이 쓴 높이 15.2m 규모이다.

사적 제56호로 지정된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이다. 권율장군의 지휘로 2,300명의 정예병과 승병, 의병, 부녀자 등

하

기에게 앞서 대종회 권오성, 권행완 두 국장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다. 전세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버스 안에는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40여 명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제목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노래 부른 회원들의 제목을 대충 적어본다.

권기현 능우회장이 ‘주풍령 고개’ 권준섭 능우회원의 ‘주여의 소야곡’ 권오성 능곡회장 ‘천년지기’ 권기형 운영위원회장 ‘보릿고개 길’ 권용철 사무국장 ‘사내’ 권영복 자문위원 ‘사나이 눈물’ 권우성 전 사무국장의 ‘가족사진’ 등이다.

전세버스는 어느덧 경북 예천군에 도착, 회룡포식당에서 순대국밥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안동에 도착했다. 버스 안에서 권오성 능곡회장은 “오늘 장시간 함께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다가오는 복회 때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단원들은 “행주산성과 권율 장군에 대한 역사를 알고 나서 안동권씨로 태어난 것이 흐뭇하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권오성 능곡회장은 동행한 단원들에게 타월 1장과 양말 1~2켤레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 정정보도

2022년도 5월호(563호) 기사 중 잘 봤던 기사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 1. 제1면 시조 태사공 춘향제 현성금 광로란 기사 중

번호	정정 전	정정 후
4	宗親會長協議會	安東
5	參議公派宗會	安東
8	僕射公派宗會	安東
11	佐尹公派宗會	浦港
16	安東陵谷會	安東
21	副正公派宗會	安東

### 2. 제2면 명인 명소(名人 名所)의 연천 경순왕릉 기사 중

정정 전	정정 후
안동권문의 시조 권행완은 원래 신라 경순왕의 외손이셨다.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은 원래 신라 56대 경순왕과 8촌 사이의 왕족이었다.